

부산경제의 주춧돌 영도의 자랑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경영진은 72년 동안 조선소를 성장시킨 노동자의 불법해고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09년 12월, 한진중공업에서 날벼락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직원 1000명 정리해고, 기술본부 타회사로 분리”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20여년 동안 해마다 흑자를 이어오던 한진중공업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은 ‘정리해고’가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청천벽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진중공업은 부산과 영도경제를 발전시켜온 노동자를 하루 아침에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진중공업(조선 부문, 부산 영도구 봉래동)은 1937년 현재 자리에서 ‘朝鮮중공업(주)’으로 출발하여 한국조선산업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2년동안 노동자들은 험악한 산재사고와 7천도가 넘는 용접, 절단화염을 견디며 한진중공업을 견실히 성장시켜왔습니다.

불황 이긴 업종들 행복한 연말... “지금만 같아라”

4분기 수주 릴레이 ... 새해도 ‘맑음’



조선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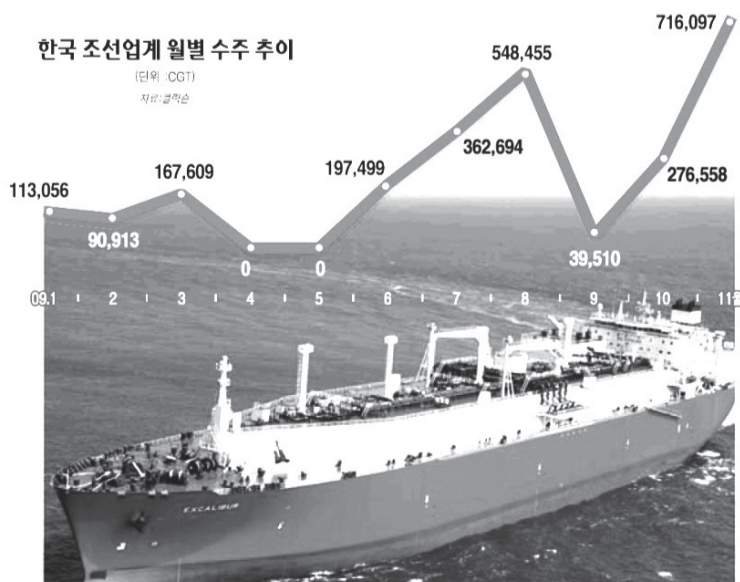
조선업계가 올 4·4분기 들어 릴레이 수주에 성공하고 신규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올 한 해 급격히 위축됐던 선박발주세가 지난 10월부터 어느 정도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풍력발전, 주택건설, 조선소 설립 컨설팅 등 새롭게 진출한 사업 분야의 성과도 본격화하고 있어 내년 전망을 밝게 한다.

25일 조선·해운 시장조사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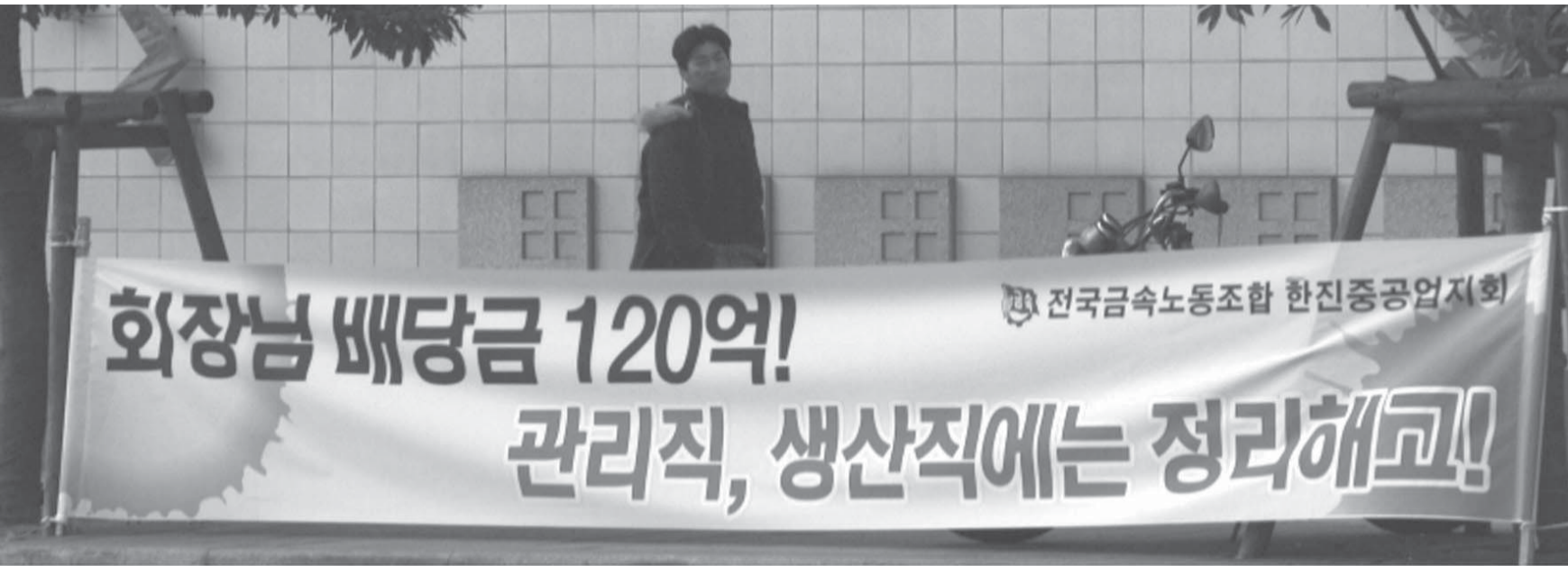
업계 올 실적중 절반이상 집중
대우조선 83%·STX는 60%나
풍력발전·주택건설·컨설팅 등
신규진출 분야도 성과 잇따라

한국 조선업계 월별 수주 추이

(단위: CGT)
자료: 클락슨



‘서울경제’ 신문. 2009. 12. 26(토)



조남호 회장... 배당금 120억원	(2008년)
당기순이익 ... 1056억원	(2009년 9월 30일 현재)
이익잉여금 ... 1686억원	(2009년 9월 30일 현재)
가동율 - 특수선 110%(14,857 D/T)	신조선 86.6%(653천 G/T)

한진중공업에 2009년 3분기 누적당기순이익 1056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직원의 30%인 1000명을 불법적으로 해고시키고자 하며 핵심부서를 타회사로 분리시킨다고 합니다.
조남호회장은 이익금 120억원을 타가면서, 망해가던 한진건설부분까지 살려놓았던 한진노동자들을 왜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까?

부산시민은 한진중공업경영진에 촉구합니다

회사 경영이념 ‘인재육성’ 과 ‘상생협력의 기업문화 구축’ 대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